



저레의 땅을 딛고선
흰 고무신

계훈제 1

정도상 (소설가)

19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갓난아기의 운명은 그가 조선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평안북도 선천군 부황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앞으로 펼쳐질 갓난아기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난 역사적 조건은 험난한 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1945년 8월10일이었다.

바로 닷새 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를 폐허로 만들자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통보해 왔다. 일제와의 전쟁을 총괄하던 미국 3성(省)조정위원회(SWNC)의 전략정책단은 항복문서 초안을 부랴부랴 마련해야만 했다. 이날 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 사이에 정책단이 결정해야 할 난제는 10일자로 압록강변의 웅기에 상륙하여 남하(南下)하기 시작한 소련군의 진군을 막는 것이었다.

당시 미군은 한반도로부터 무려 6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조선을 고스란히 소련군에 넘겨주어야 할 초조한 형편이었다. 이때 전략정책단장 GA 링컨 준장이 “내일 아침 우리는 소련군이 일본해협의 쓰시마를 점령했다는 뉴스를 듣게 될지 모르겠다.”고 경악하였다. 해군제독 가드너는 “만일 소련군이 한반도의 수도를 점령했다면 미군은 한반도 최남단의 부산이라도 점령해야 할 게 아니겠느냐.”고 투덜거렸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중에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될 서른다섯 살의 정책과장 CH 본스틸 대령이 조선 지도를 보다가 30분 만에 조선의 허리를 자르는 38선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었다.

겨우 30분 만에 짜낸 아이디어의 결과로 부랴부랴 탄생한 38선.

38선은 이렇듯 우연성 속에서 부랴부랴 탄생했지만 그 결과는 실로 참혹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자기의 생을 역사에서 분리하고자 노력해도 그러나 역사는 인간에게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갓난아기 계훈제의 삶도 그 후로 진행된 역사의 모든 비극으로부터 비껴나질 않았다. 특히 잘못 가고 있는 역사와 정면에서 싸워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극의 정도는 더욱 컸다.

방학동 가는 길…….

계훈제의 이름 세 글자만 겨우 알고 가는 그 길의 하늘

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파트의 어두침침한 거실에서 만난 계훈제 선생(이하 선생 생략)의 아내인 김진주 여사를 만나는 순간, 무척 당황해야만 했었다.

거동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김진주 여사는 분노에 사로잡혀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다. 생의 전부를 민주화운동에 바친 계훈제의 삶이 함부로 폄하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온통 어둠으로만 가득 찼던 시대,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햇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대해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파트를 나와 마을버스를 타러 가는데 서서히 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무심하게 어둠의 시대를 회고했던가? 그 시대의 거친 강물을 함께 건넜던 선배들과 지금도 제대로 된 소통을 나누고 있는가? 어쩌면 계훈제에 대한 폄하는 바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삶의 섬세한 갈피를 깊이 있게 담아내지 못했던 심사위원들의 좁고 융통성 없는 소견들이 바로 문제였다.

한 사람의 생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친 사람의 생을 역사의식이 없는 법조항의 시선으로 보는 심사위원들의 양식이란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는가? 심사위원들이 심사대상이 된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그럴 듯한 직위와 경력을 자랑하겠지만 역사를 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생애 불과하다. 어찌 감히 심사의 소견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역사는 항상 법률을 뛰어넘어 존재해왔다. 역사가 법률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인류에게 진보는 영원히 없을 터였다.

다시 계훈제의 삶으로 돌아가자.

아무 것도 모르고 태어난 계훈제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하기를 시작했다. 그



계훈제선생이 생전에 즐겨 신고다니던 흰 고무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기증·보관)



‘신성학교’ 재학당시 (맨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계훈제)

것은 계훈제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 계훈제의 아버지 계봉집은 3대조 때부터 뿌리를 내렸던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상가도 혁명가도 독립 운동가도 아니었다. 소박한 농민이었다. 떡갈나무 밑에서 조용히 망국을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이다. 강가에서는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를 읊었다. 그러나 그는 저항인이었다. 일제의 쌀 공출과 전시 총동원을 거부했고, 지원병제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아들의 권유에도 아랑곳없이 남하를 거부했다. 죽지 않는 야인이다. 칼로 잘라도 잘리지 않는 물과 같은 야인이다. 말과 사상을 빼앗아도 빼앗기지 않는 지사이다. 이런 분이 진짜로 역사를 추진하는 세력인지 모른다. (계훈제 지음, 「계훈제 미완의 자서전 흰 고무신」, 2002년 3월 21일 삼인출판사, 이하 약칭으로 「흰 고무신」으로 표기함)

계봉집의 특징을 아들 계훈제는 이렇게 말했다. 계훈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게 되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무대가 압록강과 장백산맥 주변으로 옮겨졌다. 압록강 하류에 있던 계훈제의 집에는 독립 운동가들이 어둠을 틈타 드나들기 시작했다. 계봉집은 그들에게 정세와 전황을 전해 들으며 노자와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이런 일로 계봉집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었다. 어린 계훈제는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감동하여 장차 독립 운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고향이 선천이었던 것 역시 계훈제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민이 이만 명이 넘었던 선천골은 한국



학창시절의 계훈제

의 예루살렘이었다. 중국을 통해서 내려오는 ‘야소교’ 선교 세력과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선교세력이 이 지방에서 만났기 때문에 야소교 세력이 대단했다.” (「흰 고무신」, 23

쪽) 선천에는 대한제국의 외부주사였던 기독교인 박희병 권사가 장로회 장로교 신성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해둔 곳이었다.

105인 사건이 발생하자 신성학교 선생들과 학생들이 오랏줄에 굴비처럼 엮여서 일본 헌병한테 끌려갔다. 달려 나온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일본헌병들과 밀고 당기고 몸부림쳤는데, 정거장까지 물려간 인원이 수백 명이었다. 그날 밤은 예배일도 아닌데 선천 읍내 교회당이 일제히 종을 울렸다. 계훈제는 신성학교에 다니면서 1년 선배인 장준하를 만나게 되었다.

신성학교는 계훈제에게는 영원한 학교로 남게 되었다. 아버지와 심인근 선생과 장리욱 교장은 영원한 스승이었다. 위대한 스승이 있으니 당연히 계훈제의 삶은 일제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길을 거부하게 되었다.

계훈제는 신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올라가 대학을 다니게 된다. 그러던 1943년 10월 20일 육군 특별 지원병 임시 채용 규칙이 육군성령(陸軍省令)으로 발표되었다. 막상 육군성령이 발표되자 계훈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등 착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사회 또한 경악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들끓게 되었다.” (「흰고무신」, 35쪽) 채용 규칙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각 신문사들은 연이어 학도병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저명 인사들도 나서게 되었는데 최남선은 “일찍 신라석일(新羅昔日)의 국민 동원 강행기에 당시의 청년이 원광법사에 게 이에 대한 필요를 물었을 때 법사는 세속오계를 말하고 특히 임전무퇴 일조를 강조함에 시대 청년의 심(心)이 이 일침에 탁 터져서 아무 지의(遲疑) 없이 제시광유(濟時匡維)의 대업으로 치진(馳進)하였었다.” (「흰고무신」, 39쪽) 라고 매일신보에 기고했으며 이광수도 앞장 섰다. 하지만 계훈제는 학도병에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반 강제로 학도병에 지원하고 말았다.

계훈제는 전쟁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압록강을 건너 집안(輯安)으로 갔지만 은신처를 찾지못해 유랑해야만 했다. 아직까지 계훈제는 적극적인 저항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선천의 집으로 갔다가 농촌으로 다시 경성 돈암동의 하숙집으로 전전하며 유랑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계훈제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곳에서 독립운동을 할 작정이었다.

만감이 교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다음 날 새벽 신의주역에 내렸다. 전시의 고달픈 생활에 허덕이는 승객들은 대한의 새벽 추위에는 촉감조차 없는 듯이 각기 발걸음이 바빴다.

혼잡한 출구를 쉽게 빠진 나는 그 길로 압록강 철교로 향했다. 나는 일제의 대륙 침략의 대육을 채워주는 거대한 악의 다리를 건너려는 것이다. 인도교의 검색은 물샷틈 없

는 기차 안의 그것보다 덜 엄격하다는 잠상(潛商)들의 말을 귀에 담고 있던 터라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운 듯했다.

그러나 막상 철교 입구에 발을 디오니 사정은 달라진다. 굵이치는 검푸른 물과 허공에 우뚝 선 철각은 많은 사연을 안고 있으려만 나의 곤두선 감각에 파고들지 못했다. 이른 아침의 선만대교에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 나는 큰 키에 흰 두루마기가 유난히 돋보임을 느꼈으나 그럴수록 거만스럽게 걸도는 풍채를 내밀었다.

순간 “죽도”(잠깐)하며 헌병대 완장을 찬 사나이가 나를 점찍었다. 물론 조선인이었다. 나는 나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없었다. 나는 원래 신분증 같은 것을 싫어한다. (『흰 고무신』, 68~69쪽)

조선인 형사의 직업적인 심문 앞에 걸려든 계훈제는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경성으로 압송되어 육군제1훈련소에 들어가고 말았다. (계속)

사진제공 : 김진주여사 (고 계훈제선생 부인)

계훈제

본관은 수안(遂安)으로, 1921년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태어났다. 1943년 경성제국대학 1학년 재학 중 일제의 학병 징집을 거부하다가 일본 헌병에 붙잡혀 지원병 훈련소로 압송된 뒤, 평양 인근의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민족해방협동단에 가입해 항일 활동을 하였다.

8·15광복 후에는 김구(金九) 밑에서 신탁통치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김구의 남북협상을 지지하였고,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회장 때에는 국립대학안반대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1960년부터 2년간 국학대학 강사를 역임하였고,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뒤에는 재야 민주화운동에 전념해 1963년 한일회담 반대, 1968년 베트남전쟁 파병 반대, 1969년 3선개헌반대투쟁 등 박정희(朴正熙) 군사정권 반대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사상계》 편집장과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1970~1979), 구하고등공민학교 교장(1973~1974), 민주주의국민연맹 운영위원(1977), 민주통일국민회의 부의장(198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의장대행(1985~1986),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1987), 자주·민주·통일국민회 의장(1988),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1989),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1991)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된 이래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3차례 투옥된 것을 비롯해, 1980년에도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1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이후에도 재야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당한 고문 등으로 얻은 폐질환이 악화되면서 1995년부터 투병 생활을 하던 끝에 1999년 3월 사망하였다.

2001년 10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위원회에서는 1958년 얻은 폐결핵과 노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정한 1969년 8월 7일 이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기각하였고, 명예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실이 2002년 1월 말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판정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른 후, 2002년 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저서에 《식민지 야화》 외에 죽기 직전 병상에서 자서전 《나의 투쟁, 나의 일생》을 집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정도상

196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전북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단편소설 《십오방 이야기》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창작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 《아메리카 드림》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그대여 다시 만날 때까지》, 《푸른 방》, 《누랑》 등이 있다. 현재 (사) 통일맞이 늦봄문학회목사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디오 21(www.radio21.co.kr)의 《정도상의 문학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다.